

중국 청도에 산업안전을 전하는 날

- 대한산업안전협회 · kotra 공동 주체 -

취재 | 최종덕 기자

해안 공업도시로 중국 경제 발전 중심에 있는 청도도 세계 금융위 기한파는 피해갈 수 없나보다.

기업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까지 위축되어 근로자부터 경영주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몸서리를 친다. 중국 주체 kotra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힘을 불어 넣기 위한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청도다.

재중 한국투자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을 비롯해 노무관리, 통관비용절감이라는 세 가지 Section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산둥반도 위쪽에서 이른 새벽부터 통역관을 대동하고 6시간 달려온 기업체를 비롯한 150여명의 관계자가 뜨거운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2008년 새로 개정된 중국 노동법에 따른 대처 방안은 재중 한국투자기업에 피와 같은 정보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가 적극 개입하며 노력하고 있는 산업재해 감소방안은 산업안전 관련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투자기업에 있어 살과 같은 정보로 갑자기 찾아온 28도의 열기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5시간 동안 자리하는 모습에서 이날의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날 주요 발표 내용을 간추려본다.

주중대사관 강현철 노무관

중국의 산업안전의 주요 법적 근거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용자, 근로자,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노동법을 비롯해, 산업재해의 예방, 관리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안전생산법, 직업병 관련한 직업병예방법, 이 3가지가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생산이 우선시되는 사회 풍토 때문에 법은 잘되어 있어도 기업에서는 생산위주의 관리가 운영되고 있어 산업재해는 관심 밖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중국 내에서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탄광산업에서는 매년 대형 탄광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중앙 및 지역의 지도자들이 대형 사고 발생현장을 방문하여 지휘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2006년 부터 각 지방별 11차 5개년 계획을 설정한 목표관리제도가 달라지는 중국을 말해준다.

2007년 산업안전 감독이 2,985,000건으로 전년대비 31.8% 증가되었고, 산업안전 행정 처벌 건수도 11,000건이 증가한 75,000건, 생산중지 및 개선명령을 받은 곳도 19,000개소, 패쇄조치를 한





강현철 주중대사관 노무관



이백현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본부 본부장

4,500여 개소 등 중국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중국내에서도 노무관리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이 노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기업에서도 미연에 대비하는 분위기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본부 이백현 본부장

중국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개정된 중국 노동법과 산업안전관련법에 취약한 기업이 있다면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안전관리 사각지역에 있으면서 산업재해의 80%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함을 볼 때 이들 기업들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는 바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사고들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형사고로 인한 심리적 공황상태는 안전 불감증으로 변질되어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남대문 전소 사고, 사회적 이슈가 된 건설현장 크레인 전도 사고 등인데 오늘 행사는 이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재중 한국투자기업에 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서만식 대한산업안전협회 기술이사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우승과 WBC 준우승에 못지않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중국에 나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기업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안전한 기업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기업 발전을 기원하는 우리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재중 한국투자기업의 동반자가 되어 안전한 기업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오늘이 계기가 되어 우수한 산업안전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중국 사회에 안전이 꼭 필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